

차량 인증부터 개발까지... BMW “韓 소비자 편의향상 집중”

R&D센터코리아, 청라로 확장 이전
韓 시장 위한 최적화 솔루션 개발
국내 스타트업 등 협력 강화 방침

지난해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은 BMW가 남다른 ‘한국사랑’을 이어간다.

BMW그룹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구축한 국내 연구개발(R&D) 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확장 이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R&D 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BMW그룹 코리아는 22일 오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BMW그룹 R&D 센터 코리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BMW그룹 본사 경영진도 대거 참석했다.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 다니엘 보트거 BMW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용우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당선인 등 국내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BMW그룹은 R&D 센터 구축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했다.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한국에 새롭게 문을 연 R&D 센터 코리아가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R&D 센터는 국내에 출시할 BMW그룹 차량의 인증 및 제품 개발은 물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한다. 센터는 5296㎡ 부지에 연면적 2813㎡ 규모의 단층 건물로 들어섰다.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차량 시험실.

/BMW그룹 코리아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총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시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연구센터에서 처음 찾은 곳은 HIL 작업대다. 이곳에는 BMW와 MINI 차량에 적용된 디지털 계기반은 각각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차량의 국내 출시전, 해당 국가에 특화된 기능, 성능, 신뢰성을 모의 시험하는 곳이다. 자동화된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환경을 연출한 환경에서의 시험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어방문한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는 신차나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 탐색하고 미래의 기술을 현실로 만든다. 한국 내 파트너와의 협력 역할 등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BMW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인증 실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작업등을 진행한다.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

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시험실에서는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최신의,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의 검사와 진단, 수리,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한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MW그룹 코리아는 한국 업체와 협력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BMW그룹은 지난해 한국 협력업체로부터 약 6조 5350억 원의 부품을 구매했다. BMW 그룹 코리아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그룹, 한국타이어, 세방전지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누적 금액은 2010년 이후 약 30조 78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자동차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BMW 스타트업 캐리지도 신규 R&D 센터에 들어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G모빌리티, 3분기만에 ‘매출 1조’ 돌파

올해 1분기 수출물량 증가 실적 견인
KG모빌리티가 올해 1분기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KG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180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1.1% 증가했다. 순이익은 226.1% 늘어난 5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분기 기준 2년 연속 흑자다.

1분기 판매는 2만 9326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5% 감소했다. 내수 판매가 46.5% 줄어든 1만 2212대에 그친 반

면 수출은 1만 7114대로 2014년 1분기(1만 9874대)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39.2% 큰 폭으로 증가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튀르키예에 이어 뉴질랜드에 브랜드 첫 전기차인 토레스 EVX를 출시하는 등 최근 글로벌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로 매출액 1조 원 돌파와 함께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로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X판토스,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 개장

유럽 물류 거점 인프라 확보

LX판토스가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을 개장하고 유럽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X판토스는 1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큐어 호텔(Mercure Hotel Magyar Kiraly)에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최대 생산 허브 및 주요 철도 노선 인근에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다페스트 남서쪽 65km에 위치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은 총 면적 3만 6000㎡(축구장 5개 크기)로 2개의 철도 선로를 갖췄다. 이는 1450 TEU에 달하는 화물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루 3회의 블록트레인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블록트레인(Block Train)’이란 기차처럼 출발지와 도착

지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화물 전용 열차를 말한다. LX판토스는 오스트리아 철도청으로부터 10년간의 터미널 이용권을 인수했다. 또 이후 10년 이용연장 우선권도 확보했다.

헝가리는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배터리 생산국이다. 부다페스트 인근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비해 기존 철도 터미널의 입지 문제 및 화물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LX판토스는 이번 타타 터미널 개장으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허브에 인접한 최적의 물류 거점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화물 처리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다양한 철도 상품 개발을 통해 유럽 물류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LG, ‘AI 클로이 로봇’으로 배송사업 확대

물류 서비스 등 B2B 분야 사업 속도
배송 현황 등 로봇 관제 솔루션 제공

LG전자가 AI 로봇과 고도화된 로봇 관제 솔루션을 앞세워 배송, 물류 서비스 등 B2B 분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이달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 오피스·호텔·아파트·병원 등 건물 공간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에 AI 자율주행 배송 로봇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가 AI 클로이 로봇과 배송 현황 및 로봇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자체 로봇 배송 서비스를 연동 후 운영한다.

양사는 앞서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AI 로봇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기술 협업을 지속해왔다.



LG전자 모델이 클로이 로봇의 서랍에 배송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

/LG전자

예를 들어 고객이 서비스 앱으로 건물 내 상점에 커피, 음식 등을 주문하면 직원은 물품을 로봇의 서랍에 넣고 보낸다. 서랍에는 배송 중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는 보안·잠금장치가 있다.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탑승하거나 자동문을 통과하며 최대 4곳까지 한 번에 물건을 배송한다.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4칸의 양문형 서랍에 최대 30kg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보통 크기의 커피를 최대 32잔까지 탑재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에는 위생을 고려해 향균 처리된 소재 및 탈취용 환기팬을 적용했다. 6개의 바퀴에는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해 음료를 신고도 건물 내 공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전면에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이동형 광고판 역할도 한다.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건물 내 에스코트 기능과 음성 안내 등을 지원한다.

LG전자는 2030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육성 중인 배송, 물류 등 상업용 로봇 사업의 역량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를 투자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13개 언어 지원 AI 통역 솔루션 출시

‘트랜스 토크’ 선택... LLM 등 적용

SK텔레콤이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통역 솔루션 ‘트랜스 토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랜스 토크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13개다.

외국인 관광객이 투명 스크린 앞에 설치된 마이크에 본인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 데스크 담당자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후 담당자가 한국어로 답변하면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광객 언어로 변환돼 모니터에 나타난다.

트랜스 토크는 투명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마이크 앞 소리만 전달해 주위 소음을 최대한 제거하

는 지향성 마이크, PC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AI 기반 통역 솔루션을 위해 K-AI 얼라이언스 멤버인 AI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함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엔진, 거대언어모델(LLM) 등의 기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 토크가 우선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안내데스크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과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